

< 정상추진 >

85. 충북 동부축(백두대간연계) 고속도로 건설

주관부서	도로과	과장	강종근(☎4210)	도로계획팀장	유영진(☎4221)
				담당자	김용희(☎4222)
신규 / 계속		임기내 / 임기후	예산 / 비예산	사업주체	국가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영동~보은~괴산~제천(덕산~금성 남제천 IC)~단양
- 사업규모 : L=131km(4차로 신설: ①영동~보은 23, ②보은~괴산 49, ③괴산~제천 43, ④제천~단양 16)
 - * ① 국가계획 반영(남북6축 영동-진천 중용), ②~④ 신설노선(국가계획 반영 필요)
- 총사업비 : 4.4조원(국비(도공), 보은~괴산 1.9, 괴산~제천 1.7, 제천~단양 0.8)

□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 실적

(단위 : 억원)

구 분	투 자 계 획								투 자 액 확 보							
	총 계	기투자	22년	23년	24년	25년	26년	임기후	총 계	기투자	22년	23년	24년	25년	26년	임기후
계	44,000	-	-	-	-	-	-	44,000	-	-	-	-	-	-	-	-
국 비	44,000	-	-	-	-	-	-	44,000	-	-	-	-	-	-	-	-
도 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
시군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
기 타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

□ 계획 대비 추진실적

1)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

【 2022년 】

- 추진계획
 - 타당성조사 및 논리개발용역 착수 및 추진
- 추진실적
 -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논리개발용역 착수 : '22. 8.

- 지사님, 국회 성명서 발표 : 8. 31.(수)
- 지역 국회의원 방문 건의(박덕흠, 변재일) : 9. 2.(금)
- 국토부 지역협의회 : 9. 22.(목) / 21명 / 국토부 국토도시실장
- 영동~진천 민자사업 추진 건의 공문 시행(도→국토부) : 10. 25.(화)

【 2023년 】

○ 추진계획

- 타당성조사 및 논리개발용역 착수 및 추진

○ 추진실적

- 국토부-충청권 지역발전협력회의 건의 : 1. 5(목)
- 지역 국회의원 방문 건의(박덕흠, 엄태영) : 2. 1(수)
- 국토부 방문 건의 : 2. 21(화), 3. 8(화), 3. 31(금)
-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논리개발용역 보고회 : 3. 6.(목)
- 영동~진천(오창) 민자사업 추진 확정 및 민자적격성 조사의뢰 : 3. 21.(금)
- 도로공사 중장기 고속도로망 구축계획('26~'35) 건의사업 제출(도→도공) : 6. 16(금)
- 영동~진천(오창) 민자사업 국토부, 박덕흠 국회의원 방문 건의 : 7. 5.(수), 7.18.(화)
-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논리개발용역 준공 : 12. 1.(금)

【 2024년 】

○ 추진계획

-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(수정)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

2) 연도별 홍보(보도)실적

【 2022년 】

- ‘영동~진천 고속도로 연계 지역개발’ (12. 11. 충북일보)
- ‘40년간 희생한 충북...내륙발전 지원 특별법 만들어주세요’ (12. 11. 서울신문)
- ‘충북, SOC 현안 사업비 지원 요청’ (‘23. 1. 충청매일)

【 2023년 】

- ‘충북 영동~오창 고속도로 민자로 건설..적격성 조사’ (3. 23. 연합뉴스)
- ‘충청북도 영동~오창 고속도로 민자 건설 추진’ (3. 24. KBS)

【 2024년 】

- ‘충북도, 2024년은 육로와 하늘길을 여는 원년의 해’ (1. 18. 불교공뉴스)

3) 연도별 도민과의 소통실적

【 2022년 】

-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 발표 ('22. 8. 31.)

【 2023년 】

- 도지사, 영동~오창 고속도로 민자사업 확정 브리핑(3. 23.)

【 2024년 】

- 도지사, 2024년은 육로와 하늘길을 여는 원년의 해 브리핑(1. 17.)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(문제점)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충북 동부권 내륙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자, 저발전 낙후지역으로 국가간선도로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나,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가계획 반영 필요
- (대책방안) 영동~보은까지 23km는 영동~진천 고속도로를 중용하고 있어 조기 건설을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, 보은에서 단양까지 108km는 타당성 및 논리 개발을 통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(수정)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

□ 향후 계획

-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추진('24. ~)
- 영동~진천(오창)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 적격성 조사 완료('24. 4.)

□ 기대효과

- 백두대간권 국립공원(속리산, 월악산, 소백산 등)과 풍부한 관광자원 연계로 대한민국 新 관광벨트 조성, 국가 관광산업 활성화 촉진
- 백두대간권의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부족한 충북 북부권(제천, 단양)과 남부권(영동, 옥천) 연계성 강화로 국토균형발전 촉진
→ 이동 거리 약 70km 단축, 충북도 연계성 강화와 동질감 회복

◦ 영동IC-단양IC : (現)약 184km(상주경유 / 옥천경유시 207km) (改善)약 113km(71km 단축)

◦ 보은IC-단양IC : (現)약 160km(상주경유 / 청주경유시 174km) (改善)약 90km(70km 단축)

주요성과

- ▶ 국토부, 영동~진천(오창)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확정 및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('23. 3.)
- ▶ 동부축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논리개발 연구용역 준공 ('23. 12. 1.)